

# 게임업계, 올해 '이 같았다'... 장르도 플랫폼도 '총력전'

신작 48개, 실적 반등 위한 대공세  
모바일·PC·콘솔 등 플랫폼 총출동  
AI·블록체인 신기술 접목 등 차별화  
재도약 원년... 마케팅도 전력 투구

국내 게임사들이 일제히 올해 신작을 대거 선보인다.

지난해 넥슨, 크래프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실적이 고전을 면치 못한만큼 신작을 통해 올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장르도 다양하다. 모바일, PC 콘솔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출시가 예정돼 있다. 게임사들은 올해를 실적개선을 위한 원년으로 보고 일제히 과감한 마케팅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에만 약 48개 이상의 신작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지식재산(IP)을 재해석한 신작들이 눈에 띈다.

넥슨은 간판 IP 중 하나인 마비노기의 플랫폼을 모바일로 옮긴 '마비노기 모바일'을 내달 27일 정식 출시한다.

넷마블은 2014년 출시했던 '국민게임' 세븐나이츠를 리메이크한 '세븐나



크래프톤 인조이 이미지.

/크래프톤

이즈 리버스'를 상반기 중 선보인다.

앞서 양사 모두 "원작의 스토리를 유지 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개발 한 신작"이라며 "마니아층들이 많은 게임인 만큼 새로운 이용자들까지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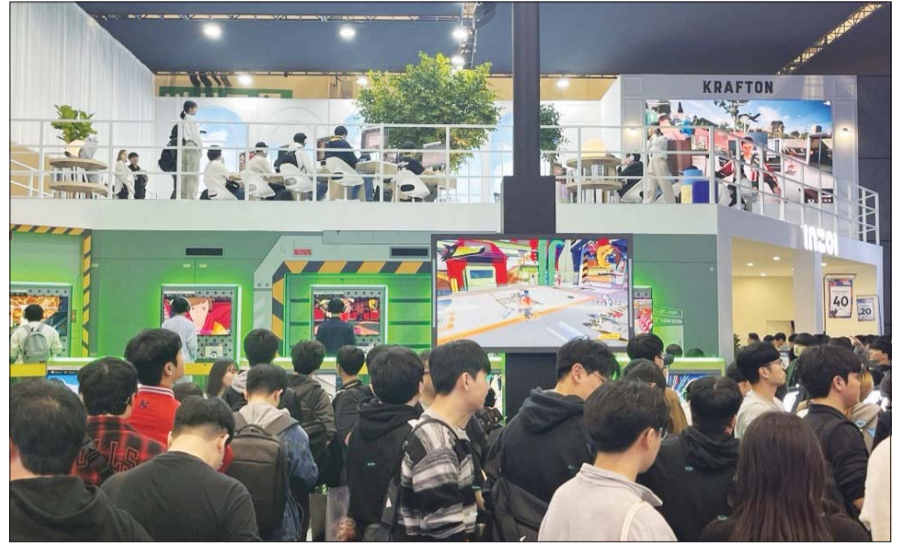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 LLL, 택탄, 타임테이커즈, 브레이크스: 언락 더 월드, 리니지M 등 6개를 준비했다. 특히 아이온 후속작인 아이온2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이온은 공개첫주부터 앱스토어 1위, PC방 점유율 160주 연속 1위

를 기록한 바 있다.

엔씨 측은 "전작 인지도가 높아 기대감이 큰 만큼 실적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펠어비스는 올해 흑자 전환 열쇠를 쥔 '붉은 사막'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실제 붉은사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붉은사막 출시로 2025년 펠어비스의 순이익은 1000억 원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2024 지스타 현장에서 신작을 체험해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최빛나 기자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예약자는 이미 300만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콘솔, AI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접목한 게임도 보인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마르'를 오는 20일 국내에 선보인다. 넥슨은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내달 28일 글로벌 출시하며, 크래프톤은 내달 28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를 같은 날 얼리 액세스(앞

서 해보기)로 공개한다. 특히 크래프톤은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와 만난 유일한 게임사 CEO인만큼 이번 인조이에 어떤 오픈AI 기술이 접목될지 이목이 쏠린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이 적었던 2023년, 2024년과 달리 올해에는 주요 게임사들이 각기 5개 이상의 신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플랫폼 신작 출시가 예정돼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동아쏘시오, 바이오·물류 호조... 흑자 성과

에스티젠바이오, CMO 성장 매출 확대  
용마로지스, 물류 확장 영업이익 38.6% ↑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주요 자회사들과 함께 외형 성장을 이뤄내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개선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024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 1조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8%, 영업이익은 6.8% 증가했다.

핵심 자회사인 동아제약은 헬스케어 전문회사로 박카스, 일반의약품, 생활건강 등 사업 부문 전반에서 성과를 거뒀다. 동아제약의 매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해 6787억원이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 커진 852억원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난 사업은 일반의약품이다. 해당 사업 매출은 1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원 늘면서 15.9%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카스와 생활건강 사업 매출은 각각 2646억원, 2080억원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옥 전경. /동아쏘시오홀딩스

이다.

물류 전문회사 용마로지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올렸다. 용마로지스는 4004억원의 매출과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2.5%, 38.6% 증가한 규모다. 회사는 신규 화주 유치와 의약품 및 화장품 물류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내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

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 회사 에스티젠바이오도 매출 성과로 성장 기반을 다졌다. 매출은 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지난해 영업손실 64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특히 에스티젠바이오는 그룹 계열사 동아에스티의 바이오시밀러 '이물도사' 상업화 물량 전량을 생산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 이물도사의 발매가 본격화되는 경우, 에스티젠바이오도 글로벌 핵심 의약품 시장에서 대형 품목을 내놓게 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고객사 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물도사는 올해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발매된다.

동아에스티도 전년 대비 5.9% 증가한 640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연구개발 투자 및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일동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인도서 주목

'2025 비타푸드 인도' 참가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회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국제 헬스케어 식품 박람회 '2025 비타푸드 인도(Vitafoods India)'에 참가해 기능성 소재를 세계 시장에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2025 비타푸드 인도'는 5~7일 인

도 뭄바이에서 열렸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해외 기업들과 유관 단체 등이 참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가 보유한 기능성 소재와 더불어 4종 코팅 가공 기술 등 프로바이오틱스 및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야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업체

와 파트너링 미팅을 갖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사 발굴과 사업 제휴 등을 타진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20여 종의 미국 GRAS(식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한 소재를 인증하는 미국 최상위 안전성 인증 제도) 원료와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원료 등 글로벌 시장의 특색에 맞춘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주한미군 진료의뢰 전국 최상위권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맞춤 진료 제공"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주한미군 진료 의뢰에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기록한 주한미군 외래 환자수는 약 3만8000명이며 주한미군 산모 출생건수는 200건을 넘어섰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는 응급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외국인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춰 평택 캠프프리스65의무여단, 브라이언 울곡 육군병원, 오산 미공군기지 51

의무전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에는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한 40대 미군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다학제적 의료 시스템과 응급환자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해당 환자는 급성 신부전증, 당뇨병성 케토산증, 급성 췌장염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고, 스마트 중환자실에서 음압 격리 후 즉각적인 혈당 관리와 수액 치료를 통해 의식을 회복했다.

또 국제진료센터는 RH-O형 혈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군부대를 통해 헌혈자를 확보하고,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미국 이송 준비를 지원하는 등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갔다.

/이청하 기자

##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최대 실적 경신

지난해 매출 1293억 기록

대웅바이오는 중추신경 질환용 전문 의약품 '글리아타민'이 지난해 1293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일 밝혔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 성분으로 함유해 뇌 기능 개선제로 쓰인다. 해당 성분은 인지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을 촉진하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최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인지 기능 및 신체 건강을 보존하는 치료제로 고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의 인지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를 SCIE 급 저널에 게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물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글리아타민'은 국내 동일 계열 의약품 중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글리아타민은 동일 계열 약물 중에서도 캡슐제, 주사제,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발매돼 환자들에게 복용 편의성과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대웅바이오는 현재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의료 현장에서 글리아타민이 환자 삶의 질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